

독주곡 상령산

獨奏曲 上靈山

독주곡 상령산(獨奏曲 上靈山)

모음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의 원래 이름은 ‘영산회상’이었다. 〈상령산〉 즉, ‘영산회상’이 『송씨이수삼산재본금보(宋氏二水三山齋本琴譜)』(1651)에 16정간 4대강의 음악으로 한문가사와 함께 수록된 이후 『금보신증가령(琴譜新證假令)』(1680)에서는 가사가 탈락하고, 『한금신보(韓琴新譜)』(1724)에서는 〈영산회상〉뿐 아니라 ‘영산회상 환입’, ‘영산회상 제지’가 등장하며, 『어은보(漁隱譜)』(1779)에서는 ‘영산회상 갑탄’이라는 파생곡이 등장한다. 이 곡은 4괘로 연주하는 『한금신보』 ‘영산회상 환입’을 7괘로 올려서 변주한 악곡이며, 현행 〈중령산〉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령산〉에서 〈세령산〉, 〈세령산〉에서 〈가락덜이〉로 파생되는 과정의 모체가 되는 곡이 〈상령산〉이다.

합주로 연주하는 〈평조회상〉에는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 해금, 장구, 좌고 등을 편성하는데 제11박부터 합주로 연주한다. 〈영산회상〉의 경우 〈상령산〉 처음 10박을 거문고가 연주하여 시작하며, 〈관악영산회상〉의 경우 처음 10박에 장구·좌고가 나온 뒤 제15박에 합주가 시작된다.

〈독주곡 상령산〉은 〈평조회상〉의 ‘상령산’ 원 가락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풀고 기교를 첨가하여 독주곡의 묘미를 한껏 드러내는 연주곡이다. 다른 이름으로 ‘상령산 풀이’라 부르기도 한다.

[illegible]

